모로코 구호단 파견…텐트 150개 지원

조계종, 10월 4일 국제합동구호단 출정식

총무원 · 동행 · NGO 등 협력
겨울나기 돕는 물품 등 구성
지원금 미화 10만 달러 규모
진우 스님 "자비행 실천"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강진 피해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모로코 현지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자비의 손길을 내민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은 10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United Global Relief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출정식을 가졌다.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필두로 총 5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은 10월 5일 한국을 출발, 6일 모로코에 입국해 현지 협력단체와 연계 구호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국제합동구호단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NGO 더프라미스, 굿윌드자선은행이 힘을 모아 구성됐다.

모로코는 9월 9일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71.8㎞ 떨어진 아틀라스산맥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8 이상의 강진으로 약 55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초간 이어진 첫 지진 발생 19분 후 규모 4.9로 발생한 여진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직후 진원지인 350㎞ 떨어진 수도 라바트, 카사블랑카, 에사우이라 등 도시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큰 여파를 남겼다. 아직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지진의 여파와 싸우고 있다. 진앙지인 산간지역 일부에서는 강진에 따른 정전이 이어져 사상자 파악과 구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산간지역 마을 여럿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리적인 이유로 구조대가 접근하기도 힘겹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모로코 현지 NGO단체인 하이 아틀라스 파운데이션(High Atlas foundation)과 연계, 임그달(Imgdal)군 150가구에 이중 재봉 및 방수처 등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겨울용 텐트(각 4m×4m×2.5m 규모) 150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조계종은 5개단체의 협력으로 구호단을 구성했다.

기금은 미화 10만 달러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모연금과 아름다운동행의 긴급구호기금으로 마련됐다.

앞서 9월 17일 파견된 조계종 합동구호단 선발대에 따르면 현재 모로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얇은 텐트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 이에 조계종 측은 방수와 이중 재봉 처리가 된 텐트를 지원물품으로 선정했다.

조계종이 모로코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우리나라와의 돈독한 우호관계에서 비롯됐다. 한국과 모로코는 지난해 수교 60년을 맞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한국전쟁 당시 프랑스 보호령이었던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참전한 바 있다.

출정식에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원들에게 명찰과 염주를 전달하며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지원은 국적과 종교를 떠나 대지진으로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인류애 정신에 입각, 자비나눔을 실천해 현지인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묘장 스님은 "현지가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산악지대"라고 설명하며 "곧 닥칠 겨울을 대비해 텐트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세히 살펴 여성용품과 어린이 물건도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호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 "정치인에 필요한 건 감정 조절"

국회정각회 10월 정기법회서
'명상이 주는 삶의 변화' 주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위한 안심법문을 설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4일 국회 본청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국회정각회 10월 정기법회 법사로 나서 "정치인은 국민과 호흡하면서도 온갖 일을 겪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상이 주는 삶의 변화'를 주제로 소참법문을 시작한 스님은 먼저 종단차원에서 추진 중인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명상센터 건립 불사 취지를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할 만큼 풍요롭지만 정작 마음이 편안한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가 국민의 평안을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정각회 정기법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

진우 스님은 이어 그간 전법의 부족으로 스님들이 매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대중화된 명상을 중심으로 다시 불교적 가치가 널리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 사마타 수행이 서구에 전해지고, 서구에서 이를 명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유행하게 된 현실을 꼬집었다.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인들이 명상을 통해 많은 효과를 보면서 서구의 명상법이 국내로 역수입돼 정작 기존 명상법이 외면 받는 현실에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차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로 이 같은 현상을 꼽은 뒤 내년 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이날 역시 인과법과 연기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진우 스님은 "고락(苦樂)의 인과는 불교용어로 업(業)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의 질량은 똑같다"며 "다만 태어나는 시점과 죽는 시점이 다르듯이 즐거울 때와 괴로울 때의 시점도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 권력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마음의 평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연했다.

진우 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을 향해 "모든 건 감정 덩어리가 교차한다는 걸 체득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빠른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에 메이지 않을 수 있다"며 "더 큰일을 하고 자리이타 하려면 나부터 마음을 중도화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 재무부장 우하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국회에서 정각회 회장 주호영 의원과 명예회장 이원욱 의원, 김병주 · 김영배 · 김형동 · 서병수 · 소병철 · 이수진(비례) · 이헌승 의원, 천우정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윤호섭 기자

"MZ세대 맞춤형 템플스테이 필요"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간담회

SNS 홍보 · 비용 할인 등
청년 접근성 주제로 토론

20대의 템플스테이 참가율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MZ세대 청년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템플스테이 비용 할인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10월 5~6일 양일간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2023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템플스테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오전에 열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간담회에서는 16개 사찰 스님 17명이 참석해 '청년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 '명상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방안' '템플스테이 체험권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입시생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했다. 여암 스님은 "전국 수험생들은 오랜 공부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용기를 주는 맞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이들의 템플스테이 경험이 대학 진학 후에도 자연스럽게 전법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대학생 포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도 "지난해 수능이 끝난 후 공허함을 느끼는 입시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체험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됐다.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은 "2년 전부터 대불련과 업무협약을 맺고 30%씩 할인을 해주니 참가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찰에서 부담되더라도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용주사 연수국장 담소 스님은 "학생들이 SNS로 템플스테이를 홍보해주면,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 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희생자 조사

조계종 사회부, 1950년 전후 기록물 연구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계의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도심)는 최근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소장 양홍석)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희생자 기초조사 사업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1948년부터 1955년 사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인적 피해 상황을 목록화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종단 기록관 고문서 및 사찰 간행물, 정부와 지자체 연구물, 전쟁 당시 정부 및 군경의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시기별, 지역별, 유형별로 목록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10 · 27법난 학술세미나 12일 개최

일면 스님, 당시 상황 증언

10 · 27법난 43주년을 추념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도심)와 10 · 27법난 피해자 모임(회장 원행)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 · 27법난 명예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장성우 동국대 교수가 '10 · 27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10 · 27법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법 연구'를 주제로 법난 피해자들을 위한 문화치유명상을 제안한다. 논평은 한상길 동국대 교수와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특히 이날 봉선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가 참석해 10 · 27법난 당시 참담했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宗 團 葬]

圓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 寂

본종 제20세 종정을 지내신 지허당 지용 대종사께서
10월 2일 주석처인 금둔사에서 법랍 67세, 세수 83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역임하신 지허 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은
선암사에서 종단장으로 10월 8일 오후 2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찾아주셔서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 그리고 각계 어른들과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지허당 지용 대종사 추모일정
초재 10월 8일 선암사
2재 10월 15일 금둔사
3재 10월 22일 옥정사(울진)
4재 10월 29일 용연사(벌교)
5재 11월 5일 용흥사(고흥)
6재 11월 12일 자은정사(경기 광주)
막재 11월 19일 선암사(49재)



한국불교태고종